

2022.10.28

<커먼즈와 공공성 : 법 제도 운동 전환 토론회>

# 대안금융운동과 공공성



자본에서 공유지로! 공유/자치/환대

**공동체은행 빈고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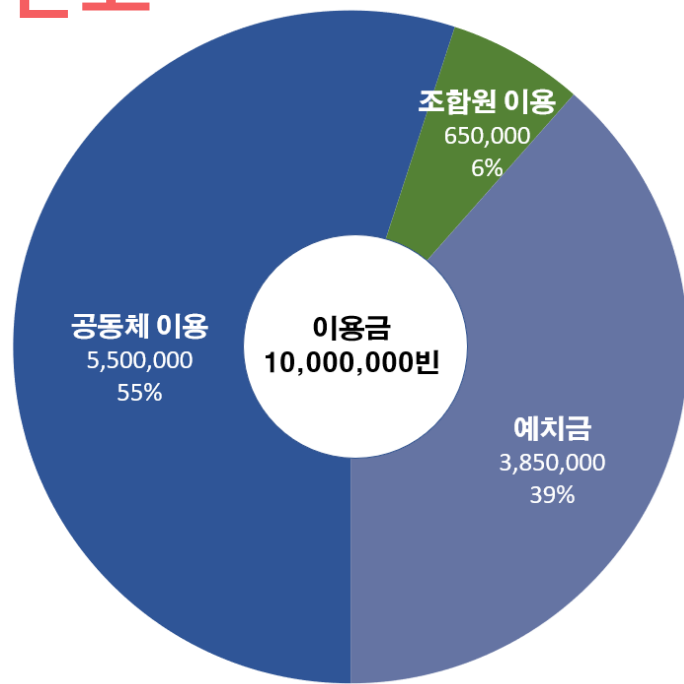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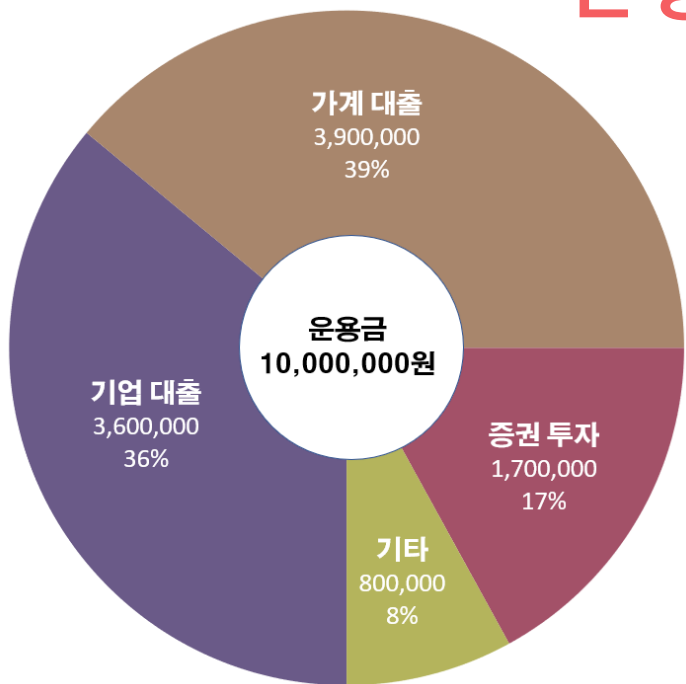
# 공동체은행 빈고

- 2008년 서울 해방촌 주거공동체 빈집 시작. 빈가게, 빈마을로 확장.
- 2010년 빈마을의 보증금과 출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빈마을금고로 시작.
- 여러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들의 금융협동조합으로 확장.
- 2022년 현재 조합원 485명, 공동체 34개, 공유지 18개
- 자산 5.2억빈, 출자금 3.5억빈
- 누적 잉여금 1.3억빈
- 누적 공유지(공동체공간) 61곳
- <https://bingobank.org/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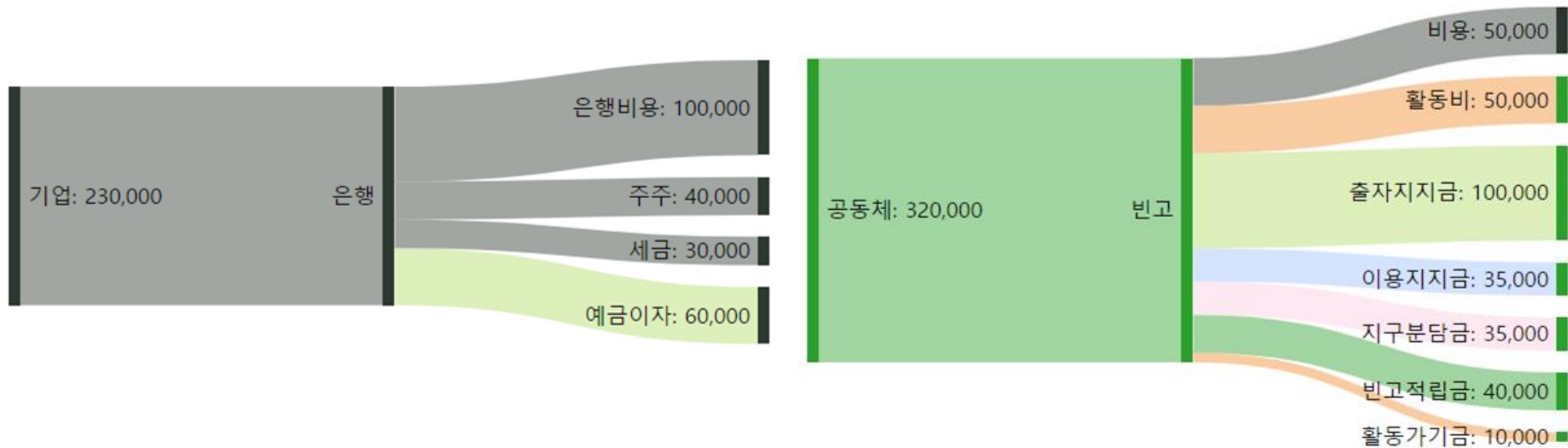


# 은행 vs 빙고



1천만원을 넣었을 때, 자산의 활용

# 은행 vs 빈고



1천만원을 넣었을 때, 수익의 분배

# 금융의 공공성

-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화폐와 은행
- 모든 사람의 저축을 모아서 운영되는 금융
-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자본 공급을 결정하는 은행
- 저축의 안정성을 국가가 세금으로 보증하는 은행
- 금융 위기일 때는 국가가 공적자금을 지원해서 살리는 금융
- 그렇다면,
- 금융 회사의 이윤은 어디서 왔고, 어디로 가야 하는가?
- 금융 회사는 누구의 것인가?

# 금융의 공공성

금융그룹 ESG경영



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 
GROWING TOGETHER, SHARING HAPPINESS

하나로 연결된 모두의 금융  
All Connected in Hana Finance

금융위원회

##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- ⑤ 금융의 공공성과 포용성을 지속 확보해 나가겠습니다.



###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(2021. 하반기)

내부통제 위험관리, 간접성관리, 공시 등  
금융복합기업집단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법이 시행됩니다.

###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 개편 (2021. 2월)

미소금융으로 사교육비도 지원하게 되며,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금리가  
인하(4.5% → 2~3%)됩니다.

### 미취업청년 지원 강화 (2020. 12월~)

미취업청년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 대상이 확대(만 30세 미만 → 만 34세 이하)되고,  
상환유예 기간도 확대(최장 4년 → 최장 5년)됩니다.

### 주택연금 개선 (2021. 6. 9.)

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 
자동승계되는 연금이 허용되고,  
압류방지통장도 도입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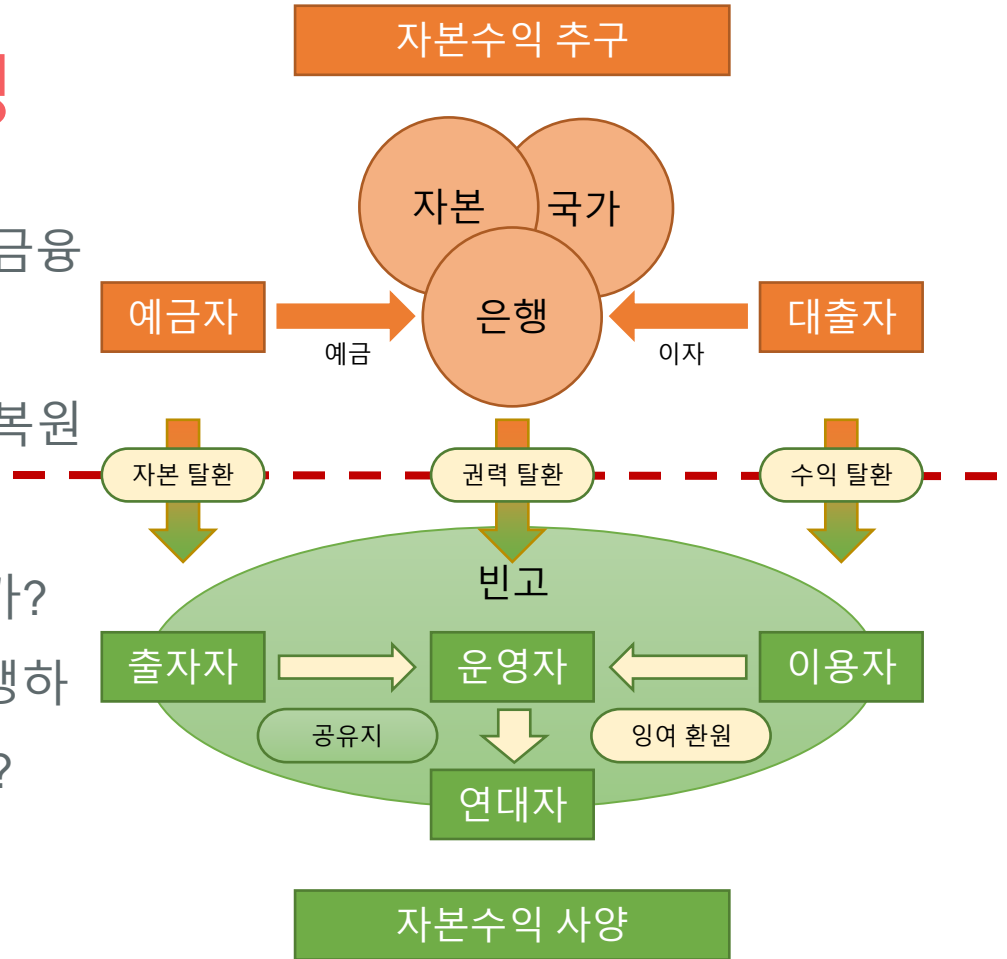


신협/시민단체/금융노조



# 대안금융운동의 필요성

- 자본수익 추구를 기본으로 하는 금융
- 자본=국가=은행
- 자본이 훼손한 공공성을 자본이 복원할 수 있는가?
- 자본금융의 문제를 보완하는 국가?
- 모두가 자본수익을 추구하며 경쟁하는 중에 공공성은 누가 돌보는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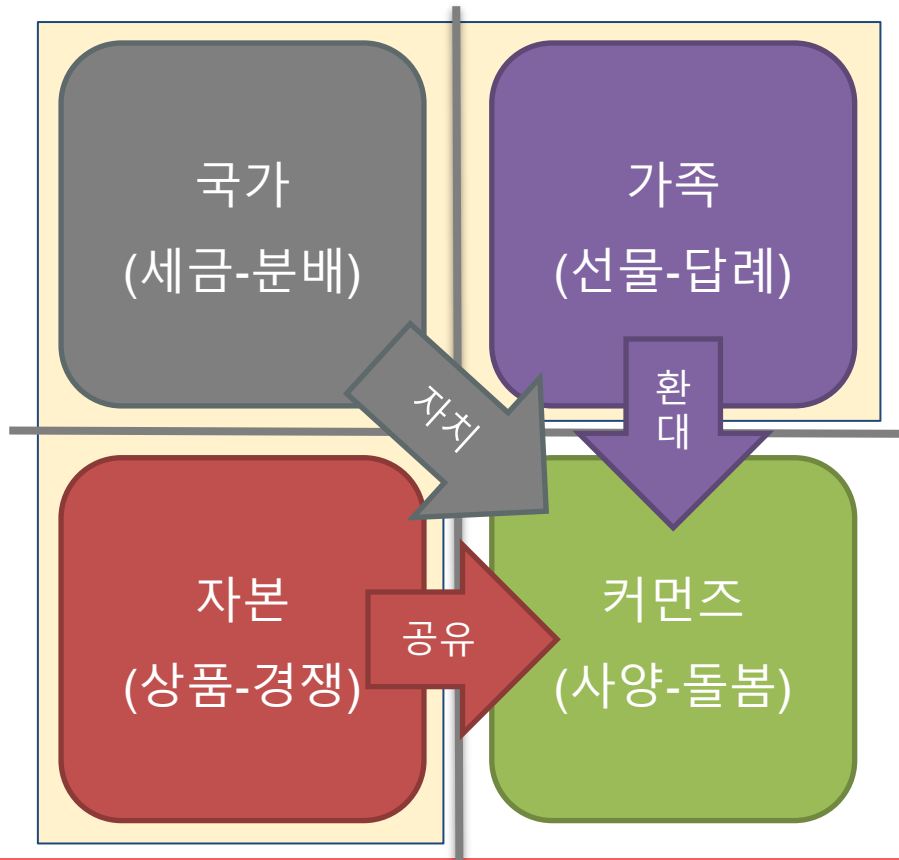




# 대안금융과 공공성

- 자본금융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대안금융.
- 국가가 하지 못한 공공성을 위한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방식.
- 우호적인 자본의 힘을 활용해서 가족/공동체를 지키는 방식.
- 대안금융운동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?
- 다시 국가와 자본의 힘에 기대야 하는가?
- “대안금융을 국가나 착한 자본가가 지원해주면 좋은데, 그럴려면 제도화되어야 하는데, 법제도가 미비해서 힘드니 개선이 필요하다.”
- 중요한 얘기인 것은 분명하지만.... 다른 길은 없을까?

# 교환양식에 따른 커먼즈의 위상



# 커먼즈의 공공성

- 국가의 공공성 : 모두의 수익을 세금으로 걷고, 이를 재분배하는 공공성
- 커먼즈의 공공성 : 모두가 수익을 사양함으로써 생기는 커먼즈를 모두가 함께 돌보고 만인이 함께 향유하는 공공성
- 공유 : 자본을 공유지로 바꾸고 자본수익을 공유하기
- 자치 : 국가의 지배와 종속을 넘어 스스로 함께 자치하기
- 환대 : 가족/공동체의 외부와 연대하고 환대하기
- 국가=자본=가족을 넘어선 커먼즈를 구축하고 확장하기

